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사우디 훈풍 속 기술주 랠리에도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수) 미 증시는 경제 지표 발표 등 이벤트 부재 속 장중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성 장세 연출한 가운데 사우디 반도체 수출 소식에 AI 기술주 랠리 이어지며 S&P500, 나스닥은 상승. 다만, 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성명에 따른 여파로 제약주 내림세 지속된 결과 다우 지수는 하락(다우 -0.21%, S&P500 +0.10%, 나스닥 +0.72%).

미 증시는 연일 급등 이후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했음에도 트럼프의 사우디 중동 순방이 훈풍으로 작용한 결과 엔비디아(+4.2%), 테슬라(+4.1%), AMD(+4.7%) 등 기술주 랠리는 지속되고 있는 흐름. 특히, 관세 리스크 완화 속 위험선호 심리가 지속된 결과 미국 시장 내에서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단기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다만, 이러한 수급적 요인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선을 상회했다는 점은 향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일부 성장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

시장 금리 외에도 이 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한국 측에 원화 가치 절상 등을 요구했다는 밀라노에서의 한미 환율 협상 소식에 1,400원선 아래로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음. 이후 '환율은 무역협상 의제가 아니다'라는 외신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재차 1,400원선을 상회. 다만, 펀더멘털 요인에 기인한 완만한 하락이 아닌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향후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금융 시장 내 불안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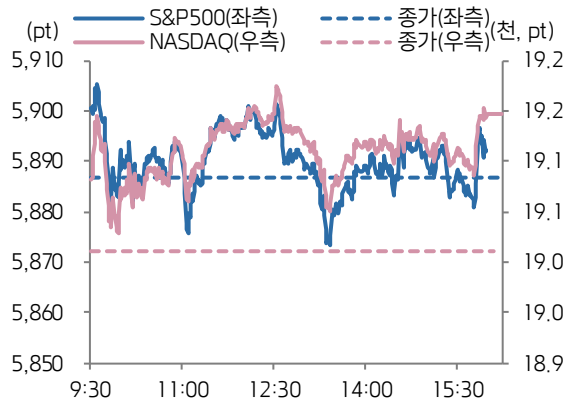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중 협상발 Risk-on 심리 지속된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트럼프 중동 순방 속 AI 투자 유치 소식에 전일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기술주가 큰 폭 반등한 결과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 견인 (코스피 +1.23%, 코스닥 +0.98%).

금일 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으로 코스피가 과매수권에 진입한 가운데 지수는 단기 숨고르기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사우디 간 최신 AI 칩 1만 8,000개 공급 체결 등으로 엔비디아(+4.2%)를 비롯한 AI 기술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HBM 관련주의 랠리를 단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

한편, 5월 들어 국내 증시로 유의미한 외국인 수급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국내 증시의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 5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1조원 가량 순매수한 가운데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 소식 이후 바스켓 거래 형식의 비차익 매수가 증가했다는 점도 긍정적. 즉, 외국인 자금의 유의미한 유입 시그널 속 단기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는 수급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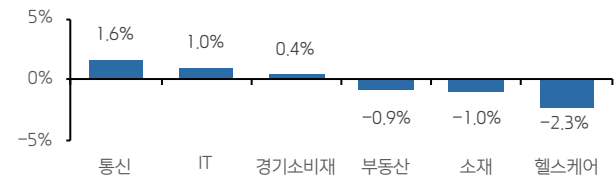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미중간 90일 휴전 합의를 성사한 이후 관세 우려 완화 속 '19년 초부터 약 3개월 가량 국내 증시는 상승한 바 있음. 해당 기간 외국인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IT가전 등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던 사례 존재. 현재는 관세 국면이 미국과 주요국들 간 협상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시 관세로 인한 이익 하향 조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세 피해 업종이었던 IT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세가 나타날 수 있는 증시 환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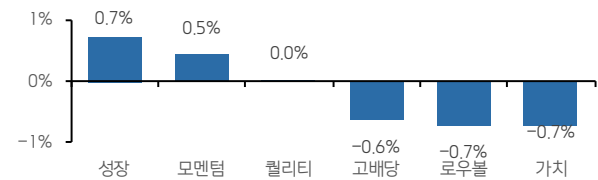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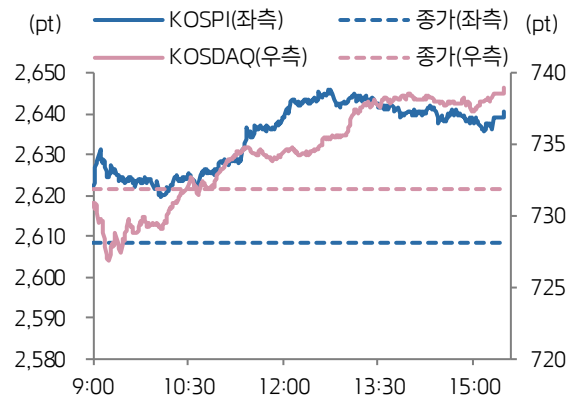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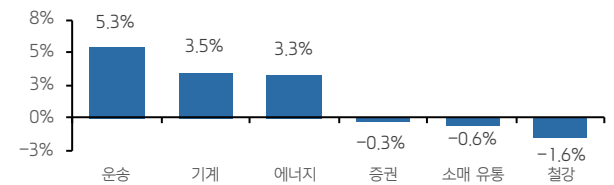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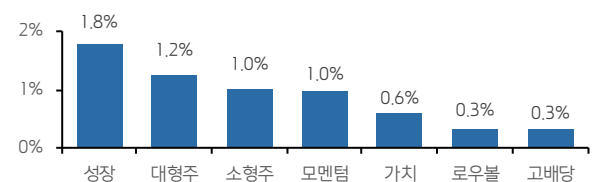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12.33	-0.28%	-15.01%	GM	50.31	-0.3%	-5.32%
마이크로소프트	452.94	+0.85%	+7.67%	일라이릴리	715.56	-4.09%	-7.15%
알파벳	165.37	+3.66%	-12.54%	월마트	96.83	+0.99%	+7.73%
메타	659.36	+0.51%	+12.71%	JP모건	265.64	+1%	+12.08%
아마존	210.25	-0.53%	-4.17%	엑손모빌	108.48	-0.9%	+1.75%
테슬라	347.68	+4.07%	-13.91%	세브론	141.67	-0.48%	-1.1%
엔비디아	135.34	+4.16%	+0.79%	제너럴일렉트릭	96.83	+1%	+7.7%
브로드컴	232.12	-0.13%	+0.42%	캐터필러	349.66	-0.82%	-2.79%
AMD	117.72	+4.68%	-2.54%	보잉	204.72	+0.64%	+15.66%
마이크론	95.32	-1.66%	+13.41%	넥스트에라	72.19	+0.1%	+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40.57	+1.23%	+10.05%	USD/KRW	1,404.50	-0.83%	-4.61%
코스피200	351.79	+1.33%	+10.69%	달러 지수	101.04	+0.03%	-6.87%
코스닥	739.05	+0.98%	+8.97%	EUR/USD	1.12	-0.09%	+7.93%
코스닥150	1,192.29	+0.42%	+5.53%	USD/CNH	7.21	+0.17%	-1.73%
S&P500	5,892.58	+0.1%	+0.19%	USD/JPY	146.75	-0.49%	-6.65%
NASDAQ	19,146.81	+0.72%	-0.85%	채권시장			
다우	42,051.06	-0.21%	-1.16%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8.62	+2.2%	+7.32%	국고채 3년	2.350	-2bp	-24.5bp
러셀2000	2,083.80	-0.88%	-6.56%	국고채 10년	2.712	-1.3bp	-15.9bp
필라. 반도체	4,960.74	+0.6%	-0.39%	미국 국채 2년	4.051	+5.1bp	-19.1bp
다우 운송	15,035.33	-0.16%	-5.41%	미국 국채 10년	4.536	+7.1bp	-3.3bp
상해종합	3,403.95	+0.86%	+1.56%	미국 국채 30년	4.970	+6.4bp	+18.8bp
항생 H	8,593.07	+2.47%	+17.88%	독일 국채 10년	2.699	+1.9bp	+33.2bp
인도 SENSEX	81,330.56	+0.22%	+4.08%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03.44	-0.24%	+10.36%	WTI	63.15	-0.82%	-10%
MSCI 전세계 지수	871.20	+0.65%	+3.55%	브렌트유	66.09	-0.81%	-11.45%
MSCI DM 지수	3,823.07	+0.77%	+3.11%	금	3,188.30	-1.83%	+18.43%
MSCI EM 지수	1,156.82	-0.43%	+7.56%	은	32.23	-1.95%	+10.2%
MSCI 한국 ETF	58.61	+0.84%	+15.17%	구리	461.10	-1.51%	+14.52%
디지털화폐				BDI	1,280.00	-1.84%	+28.39%
비트코인	103,573.64	-0.98%	+10.52%	옥수수	445.50	+0.68%	-4.96%
이더리움	2,600.25	-3.34%	-22.3%	밀	524.75	+1.45%	-7.86%
				대두	1,077.75	+0.49%	+4.16%
				커피	364.80	-3.07%	+18.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